1.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꽃, 나무
① 자립 명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들
② 의존 명사 –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

관형사형 어미(예 –은, –는, –을, –던) 뒤의 '수, 것, 만큼, 따름, 뿐, 대로, 지, 채' 등
수관형사(예 한, 두, 세, 네) 뒤의 개, 그루, 마리, 명 등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예 나는 할∨수 있다. / 영미가 가져온∨것은 책이다. / 난 할∨만큼 했다.
나는 그저 기쁠∨따름이다. / 그는 말만 그렇게 할∨뿐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한∨대로 따라 해 봐라 / 그가 떠난∨지 10년이 넘었다. / 옷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가다.
사과 두∨개 / 나무 두∨그루 / 토끼 세∨마리 / 친구 다섯∨명

적용 문제 1 | 2016학년도(2015년) 9월 평가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냅다 도망쳤다.

더 알아보기 | 의존 명사의 종류

의존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보편성, 주어성, 서술어성, 부사어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어떤 격조사와도 잘 어울리고,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서술어성 의존 명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부사어성 의존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다.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 보편성 의존 명사 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나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먹을 것이다.
- 주어성 의존 명사 예 어쩔 수(가) 없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 서술어성 의존 명사 예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 부사어성 의존 명사 예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2)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① 인칭 대명사

㉠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귀하

㉢ 3인칭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그분 …… / 재귀 대명사: 저, 자기, 당신, 저희]

재귀 대명사란?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체언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

예 철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대명사) vs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재귀 대명사)

예 그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렸다.(그=저) /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아이들=저희)

예 이 책은 아버님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것이다.(아버님=당신) ☆☆

② 지시 대명사: 사물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

	화자에게 가까움	청자에게 가까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멂
사물	이, 이것	그, 그것	저, 저것
공간	여기, 이쪽	거기, 그쪽	저기, 저쪽

③ 미지칭 대명사 / 부정칭 대명사 – 인칭, 사물에 모두 사용

㉠ 미지칭 대명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

예 누구세요? 날짜가 언제야? 장소가 어디야? 그게 무엇이니?

㉡ 부정칭 대명사: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or 굳이 밝히지 않는 것

예 누구나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는 뭐에 홀린 듯이 걸어갔다.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

더 알아보기 |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

'누구, 언제, 어디, 무엇' 등 형태가 똑같아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부정칭은 ①정해지지 않은 것 (예누구나 환영입니다), ②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예나 지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해.)이고, 그 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미지칭이다(예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야?).

적용 문제 2 | 2007학년도(2006년) 6월 평가원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3) 수사: 수량이나 순서(=차례)를 나타내는 말
① 양수사(수량): 하나, 둘, 셋, 넷(고유어계) / 일, 이, 삼, 사(한자어계)
예 사람 다섯이 걸어온다.
② 서수사(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유어계) / 제일, 제이, 제삼, 제사(한자어계)
예 첫째가 진리이고, 둘째가 자유이다.
cf. '첫째'가 '형제자매에서 제일 손위인 사람'을 뜻할 때에는 명사이다.

(4) 체언의 공통점: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예 책상이 넓다. - 명사
예 내가 밥을 먹는다. - 대명사
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 - 수사

1.2 용언 – 동사, 형용사

(1) 동사: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말

- 자동사: 주어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동사(목적어 無) 예 나는 학교에 간다.
- 타동사: 주어의 움직임이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는 동사(목적어 有) 예 밥을 먹다.

(2)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더 알아보기 I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필수개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ㄴ다(는다)'를 붙여보는 것이다. 동사는 결합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예 달리다 – 달린다(O) / 먹다 – 먹는다(O) / 높다 – 높는다(X) / 예쁘다 – 예쁜다(X)

형태가 같은 동사와 형용사들도 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크다/큰다(O). ∴동사, 그는 덩치가 크다/큰다(X). ∴형용사

예 새벽이 벌써 밝다/밝는다(O). ∴동사, 햇빛이 밝다/밝는다(X). ∴형용사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잘생기다'는 '잘생긴다'가 불가능하지만 품사가 동사이다. 왜 동사인지는 '5. 시제와 상 5.5.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자.

더 알아보기 I '있다'와 '없다'의 품사 필수암기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고, '없다'는 항상 형용사이다. '있다'가 [머물다]의 의미일 때, 혹은 보조용언일 때에는 동사, [소유], [소재(所在)]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

예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머물다] ∴ 동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 보조용언 ∴ 동사
나는 책이 10권 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 [소유] ∴ 형용사
컵이 책상에 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다. – [소재] ∴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 '있다'와 '없다'는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품사는 형용사임을 알아두자.

예 생각이 있는/없는 사람 →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되지만, 예외적으로 형용사 '있다/없다'에도 결합된다.

(3) 본용언과 보조용언

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이다.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① 본용언 + 본용언: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문을 열고 나가라.
돈을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주어라.

② 본용언 +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본용언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예 내가 아끼는 옷을 동생이 찢어 버렸다.
밥을 다 먹어 간다.
그는 붓을 들고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더 알아보기 |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하기 필수암기

용언이 두 개 나열될 때, 앞의 용언은 항상 본용언이지만, 뒤의 용언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다. 이때 뒤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면 본용언, 그렇지 않으면 보조용언이다. 또는 제1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 있다.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 그는 밥을 먹다. 그는 학교에 간다. 'go'의 의미가 있음 ∴ '간다'는 본용언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 종이를 찢는다.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다. 'dump'의 의미가 있음 ∴ '버린다'는 본용언
예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 나는 동생을 업었다. 'give'의 의미가 없음 ∴ '주었다'는 보조용언
예 실수로 돈을 찢어 버렸다. ⇨ 실수로 돈을 찢었다. 'dump'의 의미가 없음 ∴ '버렸다'는 보조용언

적용 문제-3 | 2017학년도(2016년) 6월 평가원 변형

〈보기〉의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둬라.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4) 어간과 어미

① 어간: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 가-, 달리-, 예쁘-

② 어미(語尾):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 예 -고, -니, -아서, -(으)니

㉠ 어미의 종류
- 밥을 먹다.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가라.(어말 어미)
- 밥 먹었니?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선어말 어미)

'어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어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먹다, 먹을, 먹고'에서 '-다, -을, -고'는 단어의 맨 끝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이다. 반면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先) 온다는 의미이다. 즉 '먹었니, 가시다'의 '-었-, -시-'는 어말 어미 '-니, -다' 앞에 왔으므로 선어말 어미이다. 선어말 어미에는 딱 2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바로 '시제와 높임'이다.

필수암기

어말 어미	종결 어미(문장이 끝남)	밥을 먹다. 먹니?
	연결 어미	밥을 먹고 가라.
	전성 어미(성격을 바꿔줌)	밥 먹을 사람
선(先)어말 어미(시제, 높임)		밥 먹었니? 집에 가시다.

㉡ 전성 어미의 종류 필수암기

-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 -기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기'가 '비다 오다'라는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준다.
-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는, -(으)ㄹ, -던
  예 나는 [동생이 입은] 옷을 보았다. → '-은'이 '동생이 옷을 입다'라는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준다.
- 부사형 전성어미: -게, -도록, -듯이
  예 나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 '-도록'이 '아이들이 지나가다'라는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준다.

더 알아보기 | 전성 어미 vs 파생 접미사

파생 접미사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기로 하자. 전성 어미와 파생 접미사의 형태가 같아서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수능에 많이 나온다.

'꿈을 꿈' 이라는 말을 봤을 때 '진짜' 명사는 앞의 꿈일까 뒤의 꿈일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의 꿈이라고 잘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진짜' 명사는 동사 '꾸다'에서 완전히 명사로 바뀐 경우(=파생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고, 뒤의 꿈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고 형태만 명사형으로 바뀐 경우(=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접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미'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다른 차이점은 용언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것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꿈을 꿈'의 뒤의 '꿈'은 '꾸다'로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사어와 관형어의 수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말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므로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고,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말은 품사가 명사이므로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예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 (아침에 하는 달리다(서술성 X), 관형어 '아침에 하는'의 수식 ∴ 명사)
나한테는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달리다(서술성 O), 부사어 '빨리'의 수식 ∴ 동사)
신용을 얻음이 나에게 중요하다. (신용을 얻다(서술성 O) ∴ 동사)

형용사와 부사의 경우에는 더 어렵다. '빨리 달리다'와 '빠르게 달리다'의 '빨리'와 '빠르게'는 품사가 각각 다르다.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고, '-게'는 부사형 어미이기 때문이다. 명사 파생 접미사와 같이 부사 파생 접미사는 품사를 부사로 바꿔버리는 기능을 한다. 부사형 어미는 부사처럼 기능을 하게 만들어 줄 뿐 품사 자체를 부사로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빨리'는 부사이고, '빠르게'는 형용사이다.

적용 문제-4 | 2014학년도(2013년) 9월 평가원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5)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은 '먹다 - 먹어 - 먹으니'와 같이 어간의 형태와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활용이다. 반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활용이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ㅅ' 탈락	잇다 → 이어, 짓다 → 지어	웃다 → 웃어, 씻다 → 씻어
'ㄷ' 불규칙	'ㄷ' → 'ㄹ'	묻다(問) → 물어	묻다(埋) → 묻어
'ㅂ' 불규칙	'ㅂ' → 'ㅗ/ㅜ'	돕다 → 도와, 덥다 → 더워	잡다 → 잡아, 뽑다 → 뽑아
'르' 불규칙	'르' → 'ㄹㄹ'	흐르다 → 흘러, 빠르다 → 빨라	따르다 → 따라
'우' 불규칙	'ㅜ' 탈락	푸다 → 퍼	주다 → 주어(줘), 두다 → 두어(둬)

② 어미가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하'-뒤에서) -아 → -여	하다 → 하여	먹다 → 먹어, 막다 → 막아
'러' 불규칙	-어 → -러	푸르다 → 푸르러, 이르다(至)→ 이르러	따르다 → 따라

③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어간의 'ㅎ' 탈락 & 어미 변함	하얗다 → 하얘 파랗다 → 파래	좋다 → 좋아, 놓다 → 놓아

더 알아보기 | 어간의 형태가 변해도 규칙?

'ㅡ' 탈락과 'ㄹ' 탈락은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에 속한다. 불규칙 활용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규칙 활용이 있지만 'ㅡ' 탈락과 'ㄹ' 탈락은 100%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ㅅ'으로 끝나는 용언은 '짓다'처럼 불규칙인 경우도 있고, '웃다'처럼 규칙인 경우도 있지만, 'ㅡ'는 '쓰다 → 써, 모으다 → 모아, 담그다 → 담가'처럼 모두 탈락한다. 마찬가지로, 'ㄹ'은 'ㄴ, ㅂ, ㅅ, 오' 앞에서 '살다 → 사니, 삽시다, 사세, 사오'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탈락한다. 즉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이다.

더 알아보기 | 'ㄹ'로 끝나는 어간의 '러' 불규칙 vs 'ㄹ' 불규칙 vs 'ㅡ' 탈락

- 흐르다 → 흘러 ('ㄹ' 불규칙): 어간 불규칙 활용(흐르-+-어)
- 푸르다 → 푸르러 ('러' 불규칙): 어미 불규칙 활용(푸르-+-어)
- 치르다 → 치러 ('ㅡ' 탈락): 규칙 활용(치르-+-어)

더 알아보기 | 어간 불규칙 vs 어미 불규칙 vs 어간&어미 불규칙 파악하기 필수암기

1. 형태소를 분석한다.
2. 똑같은 부분을 지운다.
3. 형태소 분석한 자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지 어미인지를 파악한다.
4. 어간이 남으면 어간 불규칙, 어미가 남으면 어미 불규칙이다. 둘 다 남으면 어간&어미 불규칙이다.
5. 단, ㄹ탈락(예 살다 → 사니? 삽니다)이나 'ㅡ' 탈락(예 쓰다 → 써, 따르다 → 따라)은 규칙에 포함한다(100%탈락하므로).

짓다 - 지어(짓+어)	: 어간에 ㅅ이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ㅅ 탈락)
덥다 - 더워(덥+어)	: 어간에 ㅂ이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ㅂ -> ㅜ)
푸르다 - 푸르러(푸르+어)	: 어미에 '어'가 남았으므로 어미 불규칙 (어 -> 러)
흐르다 - 흘러(흐르+어)	: 어간에 '르'가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르 -> ㄹㄹ)
따르다 - 따라(따르+아)	: 어간에 'ㅡ'가 남았지만 규칙 (예외) (ㅡ 탈락)
파랗다 - 파래(파랗+아)	: 어간과 어미 모두에 남았으므로 어간, 어미 불규칙

적용 문제-5 2015년 6월 고2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솟다'가 '솟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아'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엿듣다'는 '엿들어'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③ '먹다'가 '먹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⑤ '수놓다'가 '수놓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적용 문제-6 2020년 4월 고3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 기 1〉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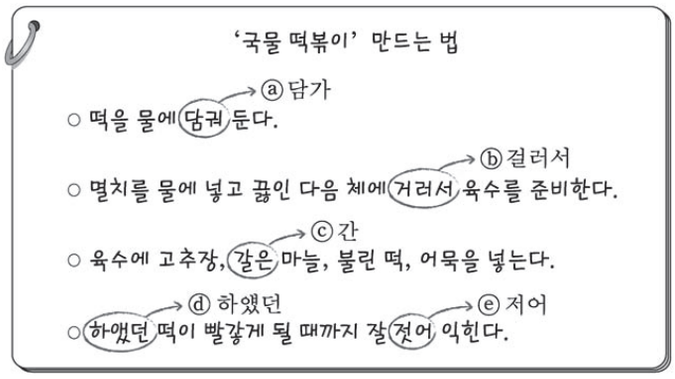
〈보 기 2〉

○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었다.
○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	㉡	㉢	㉣
①	묻었다	이르러	일러, 우러러	파래
②	일러	이르러, 파래	묻었다	우러러
③	이르러	묻었다, 우러러	파래	일러
④	묻었다, 우러러	일러	이르러	파래
⑤	일러, 우러러	묻었다	파래	이르러

적용 문제-7 | 2021학년도(2020년) 수능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예쁘-+ -어도 → 예뻐도
② ⓑ : 푸르-+ -어 → 푸르러
③ ⓒ : 살-+ -니 → 사니
④ ⓓ : 동그랗-+ -아 → 동그래
⑤ ⓔ : 긋-+ -은 → 그은

1.3 수식언 – 관형사, 부사

(1) 관형사: 체언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한정해주는 말.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수식함

① 성상 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우리말 관형사:
★표시는 무조건 눈에 익혀놓아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번 훑어보자.

갖은 예 갖은 노력을 다하다. ☆
긴긴 예 긴긴 세월
까짓 예 까짓 고생쯤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예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맨 예 그는 맨 처음 결승선에 도착했다. ☆
먼먼 예 그를 만난 것이 먼먼 옛날의 일 같다.
모든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몹쓸 예 나는 그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댔다.
무슨 예 무슨 일 있었니?
뭇 예 어둠 저쪽에서 뭇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새 예 새 집을 마련했다. ☆
아무런, 아무 예 나는 그와 아무런(아무) 사이가 아니다.
애먼 예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
어느 예 어느 것이 맞는 답입니까?
여남은 예 여남은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여느 예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옛 예 10년 뒤 찾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
오랜 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오른 예 오른 손
온 예 온 집안
온갖 예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
외딴 예 나는 외딴 마을로 들어섰다. ☆
왼 예 왼 손
웬 예 웬 날벼락이람.
지지난 예 지지난 주말
첫 예 재섭이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
한다하는(=한다는)
예 그 씨름판에는 한다하는 선수가 다 모였다.
허튼 예 그는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다. ☆
헌 예 헌 신문지를 모으다. ☆

한자어 관형사:
한자어 관형어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둬도 괜찮다.

각(各) 예 각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만(滿) 예 만 나이로는 십오 세이다.
매(每) 예 그 팀은 매 경기 우승했다.
별(別) 예 그와 나는 별 사이가 아니다.
별의별(別-別), 별별
예 별의별(별별) 사람이 다 있네.
순(純) 예 순 살코기
약(約) 예 약 두 시간
양(兩) 예 양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다.
양대(兩大)
예 양대 산맥
전(全) 예 전 국민
전(前) 예 전 대통령
주(主) 예 주 고객
현(現) 예 현 대통령

② 지시 관형사

예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예 이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 ……)

지시 대명사와 다르다! 지시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결합된다. 반면 관형사에는 어떠한 조사도 붙을 수 없고, 홀로 뒤의 체언을 꾸며준다.

③ 수 관형사

예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 (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등)

더 알아보기 |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 필수암기

관형사와 형용사가 모두 명사를 꾸며주니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다.(예 새 옷, 예쁜 옷)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불변어), 형용사는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가변어). 즉, '예쁜 옷'의 '예쁜'은 기본형 '예쁘다'에서 활용을 한 것인데, '새 옷'의 '새'는 그냥 그 자체가 관형사인 것이다.

그러나 둘의 역할은 옷을 꾸며준다는 데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위에서 배운 것처럼 '예쁜'의 '-ㄴ'을 '관형사형 전성 어미(용언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하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 형용사 '다르다' vs 관형사 '다른'

형용사 '다르다'가 활용한 '다른'과 관형사 '다른'은 형태가 같고, 의미 차이도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형용사 '다른'의 의미는 'different'이고, 관형사 '다른'의 의미는 'other'이다. 이것도 어렵다면, '딴'으로 바꾸어 보아라. '딴'으로 바뀔 수 있으면 관형사이다.

예 수업 중에 다른 생각하지 마라.(관형사) → 딴 생각, 'other'의 의미
우리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형용사) → 'different'의 의미

더 알아보기 | 수사 vs 수 관형사 필수암기

수사는 체언이고, 수 관형사는 수식언이다. 따라서 체언(수사)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이들을 구별하면 된다.

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 – 조사 '이'와 결합했으므로 수사
저기 다섯 사람이 있다. – 체언 '사람'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수관형사)

더 알아보기 | 대명사 vs 지시 관형사 필수암기

바로 위의 수사 vs 수 관형사'와 마찬가지이다. 대명사는 체언이고, 지시 관형사는 수식언이다. 따라서 대명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지시 관형사는 어떠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된다.

예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 조사 '는'과 결합했으므로 대명사(인칭대명사)
{이, 그, 저} 사람은 누구니? – 체언 '사람'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지시관형사)
이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다. – 조사 '는'과 결합했으므로 대명사(지시대명사)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 체언 '사실'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지시관형사)

적용 문제-8 | 2014년 6월 고2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에서 '큰'은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인 '사자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ㄱ.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ㄴ.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ㄷ. 수리를 하고 나니 새 가구가 되었다.
ㄹ.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ㅁ. 그의 빠른 일처리가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

	형용사	관형사
①	ㄱ, ㄷ	ㄴ, ㄹ, ㅁ
②	ㄱ, ㅁ	ㄴ, ㄷ, ㄹ
③	ㄴ, ㄹ	ㄱ, ㄷ, ㅁ
④	ㄱ, ㄷ, ㅁ	ㄴ, ㄹ
⑤	ㄴ, ㄷ, ㄹ	ㄱ, ㅁ

적용 문제-9 | 2021학년도(2020년) 수능 변형

〈보기 1〉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1〉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보 기 1〉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⑤ 새해맞이

(2) 부사: 용언이나 다른 말(부사, 관형사, 문장 등)을 수식하는 말

- 성분 부사
  - 성상 부사: 정말, 빨리, 잘 등 일반적인 부사 예 잘 먹는다
  - 지시 부사: 이리, 저리, 아까 예 이리 가라
  - 부정 부사: 안, 못
- 문장 부사
  - 양태 부사: 설마, 과연, 만약, 아마, 제발 예 과연 그 학생은 훌륭하구나!
  - 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나, 또한, 및 예 국어 및 수학

① 성분 부사: 문장 안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 꾸미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 양태 부사: 문장에서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 ·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대체로 문장 맨 앞에 오지만,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예 (설마) 그가 (설마) 도둑질까지 (설마) 하겠습니까?

㉡ 접속 부사: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

더 알아보기 | 체언 수식 부사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혹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아주, 겨우' 등이 그렇다.

예

용언 수식(일반적인 경우)	체언 수식(특수한 경우)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라.	그건 바로 너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그는 아주 부자는 아니다.
겨우 살았다.	겨우 이거?

더 알아보기 | 접속 부사가 왜 문장 부사인가요?

접속 부사는 문장을 꾸며주는 것 같지도 않고,(예 나는 국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한다.) 심지어 '및'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준다(예 나는 국어 및 수학을 공부한다). 따라서 '접속사'를 품사에 추가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 그 중에서도 문장 부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적용 문제-10 | 2009년 9월 고2

〈보기〉에 나오는 '부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몇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곳은 ㉠겨우 열 평 남짓한 간이역이었다. 역사(驛舍) ㉡바로 옆 노점 아낙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은아를 맞았다. '㉢설마 민우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지.' 은아는 코스모스 활짝 핀 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 ㉣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은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민우였다.

① ㉠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도 오는군.
② ㉡은 체언을 꾸며 주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군.
③ ㉢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군.
④ ㉣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군.
⑤ ㉤은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군.

1.4 관계언 – 조사

(1)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말

- 격조사: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 예 이, 가, 을, 를
- 보조사: 특수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 예 은, 는, 만, 까지, 도
- 접속 조사: 둘 이상의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예 와, 과, 하고, 랑

(2) 격조사 필수암기

① 주격 조사(주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이(가), 께서, 에서
'께서'는 높임의 대상 뒤에서, '에서'는 단체 뒤에서 주격 조사 기능을 한다.
예 하늘이 푸르다. / 바다가 푸르다. /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 /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② 보격 조사(보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이(가)
'보어'는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가 결합된 덩어리이다. 그리고 그 때 '이(가)'가 보격 조사이다.
예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 철수는 가수가 아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어는 '대학생이'와 '가수가'이고, 보격 조사는 각각 '이', '가'이다.

③ 목적격 조사(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을(를)
예 나는 밥을 먹는다. / 나는 차를 마신다.

④ 관형격 조사(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의
예 그것은 나의 책이다.

더 알아보기 | 관형어 vs 관형사 vs 관형사형 어미 vs 관형격 조사

아마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관형'이 붙은 용어들인 것 같다. 물론 '관형어'는 '제2장 통사론 1. 문장 성분'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관형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장 내에서 명사(체언)를 꾸며주고 있으면 무조건 관형어이다.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새 옷　② 예쁜 옷　③ 나의 옷

위의 '새, 예쁜, 나의'는 모두 명사 '옷'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모두 '관형어'이다.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자.

①번의 경우 '새'는 단어의 형태가 '새'로 고정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옷'을 꾸며준다. 이런 것들을 '관형사(품사의 일종)'라고 한다.

②번의 경우 '예쁘다'가 '옷'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ㄴ(예쁘-+-ㄴ)'이 필요하다. 이 때 '-ㄴ'이 '관형사형 어미'이다.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했으므로 어미이긴 한데, 용언을 ①의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만들므로 이름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참고로 이 관형사형 어미는 품사를 '관형사'로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예쁜'은 여전히 형용사이다.

③번의 경우 '나'가 '옷'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 이 때 '의'가 '관형격 조사'이다. 체언 뒤에 결합했으므로 조사이긴 한데,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만들므로 이름을 '관형격 조사'라고 한다. 주어를 만드는 것이 주격 조사인 것처럼 관형어를 만드는 것은 관형격 조사라고 부른다.

⑤ 서술격 조사(서술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이다

예 나는 대학생이다.

이때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달리 활용이 가능하여 '이고, 이니, 이어서' 등으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⑥ 부사격 조사(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 – 에, 에게, 께, 한테, 에서, 에게서, 에서부터, 보다, (으)로, (으)로서, (으)로써, 고, 라고, 와(과), (이)랑, 하고, 같이, 처럼, 만큼

예 나는 어제 집에 있었다. 나는 꽃에 물을 주었다. 나는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께 물을 드렸다. 나는 친구한테 물을 주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여기에서부터 두 시간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그것보다 크다. 얼음이 물로 변했다.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 대화로써 갈등을 풀어라. 그는 나에게 집에 가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집에 가?"라고 물었다.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 철수는 영희랑 결혼했다. 철수는 영희하고 결혼했다. 그는 소같이 일만 한다. 그는 소처럼 일만 한다.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더 알아보기 | 부사격 조사 '같이' vs 부사 '같이'

형태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특히 조사 '같이'는 체언에 붙여 쓰고 부사 '같이'는 띄어 쓰므로 띄어쓰기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같이

[I] 「부사」 – 체언 뒤에 쓰이지 않고, 앞 말과 띄어 쓴다.

「1」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예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2」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II] 「조사」 – 체언 뒤에 쓰이고, 앞 말에 붙여 쓴다.

「1」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2」(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예 새벽같이 떠나다)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은 [I]의 「2」와 [II]의 「1」이다. 이들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은 체언 뒤에 바로 결합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이다. 따라서 [I] 「2」의 예문을 '세월이 물같이 흐른다.'라고 바꾸면 이때 '같이'는 조사가 되며, [II] 「1」의 예문을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방바닥'이라고 바꾸면 이때 '같이'는 부사가 된다.

더 알아보기 | 주격조사 '에서' vs 부사격조사 '에서'

주격조사 '에서'와 부사격 조사 '에서'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므로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 주격 조사 '에서': 예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 부사격 조사 '에서': 예 친구와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⑦ 호격 조사(특정 대상을 부를 때 사용되는 조사) – 아(야), (이)여, 이시여
예 철수야 부산으로 가자. 영철아 부산으로 가자. 하늘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3) 보조사
① 보조사와 격조사의 구별법
㉠ 보조사는 체언, 부사, 어미에 다양하게 붙을 수 있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의 자리에 두루 쓰인다.
예 나만 밥을 먹는다.(체언 뒤), 기차가 그렇게 빨리는 못 간다.(부사 뒤),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 한다.(어미 뒤)
예 철수만 밥을 먹는다.(주어), 철수가 밥만 먹는다.(목적어), 여기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된다.(부사어)

더 알아보기 | 보조사와 격조사의 구별

보조사는 그 종류가 많아서 모두 암기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조사가 보조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다.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그 조사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면 보조사이다.
예를 들어, '까지'가 보조사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너까지 나한테 이러기야?(주어), 나는 반찬까지 다 먹었다.(목적어), 나는 부산까지 갔다.(부사어)'를 만들어 보고 여러 문장 성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까지'는 보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가', '께서', '에서'를 제외한 조사가 주어를 만들 수 있으면 보조사이다.
주격 조사에는 '이/가', '께서', '에서'밖에 없다. 그런데도 어떤 조사가 결합되어 주어를 만들 수 있으면 보조사이다. 예를 들어 '너부터 먹어.'의 '너부터'는 주어를 나타나므로 이때 '부터'는 보조사이다.
③ 부사나 어미 뒤에 결합되어 있으면 보조사이다.
이것은 격조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이므로 부사나 어미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보조사이다.

② 보조사의 의미

• 은/는 [대조], [주제(舊정보)]

예 철수가 국어는 좋아한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그 임금님은~

• 만 [단독] 예 철수가 국어만 좋아한다.

• 도, 까지, 마저, 조차 [포함] 예 철수{도, 까지, 마저, 조차} 나를 싫어한다.

•(이)나, (이)나마 [(차선의) 선택] 예 빵이나 먹자. 빵이나마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 요, 마는, 그려, 그래, 부터, (이)야, (이)야말로, ……

예 제가(요) 어제(요) 학교에(요) 갔는데(요). 예 사고 싶다마는 돈이 없다.

예 이제야 돌아왔네그려. 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먼그래.

예 너부터 먼저 먹어라. 예 국어야 철수가 최고다. 예 너야말로 조용히 해라.

(4) 접속 조사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예 나는 사과{와, 랑, 하고} 배를 먹었다.

예 과일 농장에 가면 사과며 수박이며 먹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접속 조사 '와(과)' vs 부사격 조사 '와(과)'

접속 조사 '와(과)'와 부사격 조사 '와(과)'는 형태가 같아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면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 접속 조사 '와(과)'는 문장을 둘로 쪼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부사격 조사는 문장을 둘로 쪼갤 수 없다.

① 철수는 사과와 배를 먹었다. ⇨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철수는 배를 먹었다.
② 철수는 빵을 우유와 먹었다. ⇨ 쪼갤 수 없음
③ 동생과 나는 키가 크다. ⇨ 동생은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④ 동생과 나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 쪼갤 수 없음.

따라서 ①, ③의 '와/과'는 접속 조사, ②, ④의 '와/과'는 부사격조사이다.

(5) 조사의 특징

① 생략이 가능하다. 예 너(가) 밥(을) 먹었어?

② 여러 개의 조사가 연이어 결합할 수 있다.

예 학교에서의 생활(부사격조사+관형격조사), 빵만으로 살 수 없다(보조사+부사격조사).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하다(부사격조사+보조사+주격조사).

더 알아보기 | 의존 명사 vs 조사

띄어쓰기 문제로 종종 출제되는 것이 '의존 명사 vs 조사'이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 '-(으)ㄹ, -(으)ㄴ, -는' 뒤에 오는 것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체언 뒤에 오는 것이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의존 명사	조사
대로	느낀∨대로 설명해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뿐	소문으로만 들었을∨뿐이다.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만	그가 화를 낼∨만도 하다.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만큼	노력한∨만큼 대가를 얻는다.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하지만 체언 뒤에 오지만 의존 명사인 것이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바로 표에 있는 '만'인데, '만'이 시간이나 횟수와 어울릴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십 년∨만의 귀국. 두 시간∨만에 떠났다. 세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적용 문제-11 | 2005학년도(2005년) 9월 평가원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① ㄱ의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1.5 독립언 – 감탄사

(1) 감정 감탄사

예 아하, 아, 아뿔싸, 아차, 아이코, 아이고, 이크, 와, 하하, 허허

→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높임에 따른 차이가 없다.

(2) 의지 감탄사

예 아서라, 예끼, 여봐라–여봐–여보게(여보시게)–여보(여보시오)–여봐요(여보세요)–여보십시오, 응–예, 아니–아니요, 글쎄–글쎄요

→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높임에 따른 차이가 있다.

1.6 품사의 분류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한 품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의미'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1) 형태에 따른 분류

① 가변어: 형태가 변화함 예 달리다 – 달리고 – 달리니 – 달리어서(달려서)

②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음 예 책상, 나무, 새, 빨리

cf. 조사는 대부분 불변어에 속한다. '이, 가, 을, 를' 자체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 이니, 이어서' 등으로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어에 속한다.

(2) 기능에 따른 분류: 어떤 역할을 하는지

① 체언: 문장의 몸체가 되는 말.

② 용언: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

③ 수식언: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말.

④ 관계언: 문장에서 단어들이 맺는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는 말.

⑤ 독립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필수암기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관계언	조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다'

(3) 품사 통용 ☆☆☆ 필수개념

: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① • 대로 예 느낀 대로 설명해라.(명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조사)

• 뿐 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명사) /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조사)

• 만 예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명사) / 하루 종일 잠만 잤다.(조사)

• 만큼 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명사)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조사)

② • 아이가 크는 것을 지켜보다.(동사) / 방이 크니까 좋다.(형용사)

• 날이 밝는다.(동사) / 날이 환하고 밝아서 좋다.(형용사)

• 나는 머리가 빨리 기는 편이다.(동사) /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다.(형용사)

③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수사) / 저기 다섯 사람이 있다.(관형사)
④ 나는 밥을 아니 먹겠다.(부사) / 아니! 이걸 네가 다 했다고?(감탄사)
⑤ 만세! 시험이 끝났다!(감탄사) / 나는 시험이 끝나서 만세를 불렀다.(명사)
⑥ 나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부사) / 나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조사)
⑦ 숙제를 어제 다 했다.(부사) / 어제는 오늘과 다르다.(명사)
⑧ 집에만 있지 말고 생산적 활동을 해라.(관형사) / 생산적인 활동을 해라.(명사 ∵서술격 조사와 결합했으므로)

1. 품사
한 줄 N제

정답및해설 p.20

1. 체언에는 _____, _____, _____가 있다.
2.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_____, _____로 나뉜다.
3. 의존명사는 반드시 _____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이다.
4. '영미가 가져 온 것은 책이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5.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6.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로도, _____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7. '그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8.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9. 재귀대명사는 _____인칭 대명사에 속한다.
☆ 10.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개신다.'에서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
11. '이, 그, 저' 중에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먼 대명사는? _____
☆ 12.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모르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고,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다.
13. 수사는 _____와 _____로 나뉘며, _____계와 _____계가 존재한다.
☆ 14. 수사와 수관형사는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면 _____이고, 불가능하면 _____이다.
15.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면 _____이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_____이다.
16.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격 조사 _____(이)/가 붙은 것을 의미한다.
17. 동사는 현재 시제 '-(느)ㄴ다'가 결합할 수 [있고/없고], 형용사는 결합할 수 [있다/없다].
18. _____은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없으며 본래 용언의 의미에서 벗어나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
19. 보조 용언 중, 부정을 나타내는 _____, _____는 앞 용언의 품사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
20. 동사나 형용사가 어미를 바꾸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_____(이)라고 하고,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_____(이)이라고 한다.
21. '예쁘고, 높아서, 달려서'에서 각각의 어간은?
☆☆ 22.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_____라고 한다. ㉠_____는 크게 단어의 끝에 오는 ㉡_____와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_____로 나눌 수 있다. ㉡_____는 또 문장을 끝내는 ㉣_____, 문장을 연결하는 ㉤_____, 성질을 바꿔주는 ㉥_____로 나눌 수 있다. ㉢_____의 의미는 대부분 ㉦_____와(과) ㉧_____표현을 나타낸다.
☆☆ 23.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 24.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25. 어간의 형태 변화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규칙/불규칙] 활용이다. 그런데 어간 형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보편적인 _____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규칙/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킨다.
26. '흐르다, 푸르다, 따르다' 중 '러' 불규칙인 것은?
27. '르' 불규칙은 어간의 _____이(가) _____로 교체된다.
28. 관형사는 _____관형사, _____관형사, _____관형사로 나눌 수 있다.
29.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모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사는 형태가 변할 수 [있고/없고], 용언의 관형사형은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없다는] 것이다.
30. _____는 주로 뒤에 오는 단어(용언)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31. 부사는 한 단어를 꾸며주는 _____부사와, 문장을 꾸며주는 _____부사로 나눌 수 있다.
☆ 32. '그리고, 그러나, 또한, 및'처럼 접속의 가능을 하는 말들은 [성분/문장] 부사에 속한다.
33. 부사는 일반적으로 _____을(를) 수식하지 않지만, '바로, 겨우' 등은 이를 수식할 수 있다.
34. 조사는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나 서술격 조사'_____'만은 활용한다.
35. 조사는 _____, _____, _____로 나뉜다.
36. 보격 조사가 붙는 보어는 '_____, _____' 앞에 있는 성분이다.
37. 품사 분류는 크게 '_____, _____, _____'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38. 품사는 형태에 따라 _____, _____(으)로 분류한다.
39. 품사는 기능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로 분류한다.
40. 품사는 의미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로 분류한다.
41. '철수는 자기 집에 도착했다'의 '자기'는 재귀 대명사이다. [O/X]
42. '밖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의 '누가'는 [미지칭/부정칭] 대명사이다.
43.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거셨잖아요.'에서 '그쪽'은 _____ 인칭 대명사이다.
44. '음식을 먹어 대다'에서 '대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5.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꼭 음식을 끓여 먹도록 하자.'의 '먹도록'은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6. '얼음이 얼은 걸 보니 밖이 엄청 추운가 보다'의 '보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7.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의 '보거라'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8. '영미야 저것 좀 가져 와라.'의 '와라'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9. '정신이 없어서 책을 빼 먹고 가져왔다.'의 '먹고'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0.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1. '나도 그거 한번 마셔 볼래.'에서 '볼래'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2. '어제 복도에서 뛴 사람은 누구니?'에서 '뛴'의 '-ㄴ'은 [어말/선어말] 어미이고, [전성/연결/종결] 어미이다.
53. '할머니 모시고 영화 보러 가자.'의 '고'는 [어말/선어말] 어미이고, [전성/연결/종결] 어미이다.
54. '문을 닫고 들어와라.'에서 '닫고'는 [규칙/불규칙] 활용을 한다.
55. '돕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6. '묻다(問)'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7. '빠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8. '푸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9. '하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0. '빨갛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1. ‘잇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2. ‘푸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3. ‘하얗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4. ‘영희와 철수는 대학에 합격했다.'의 ’와‘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5. ‘나는 수박과 참외를 좋아한다.’의 ‘과’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6. ‘수박은 참외와 완전히 다른 과일이다.’의 ‘와’는 [접속조사/부사격조사]이다.
67. ‘이 나무는 침엽수가 아니다’의 ‘가’는 _____격 조사이다.
68.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의 ‘에서’는 _____격 조사이다.
69. ‘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에서 ‘에서’는 _____격 조사이다.
70. ‘거기에 연필 한 자루가 있을 거야.’에서 ‘한’의 품사는? _____
71.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에서 ‘한두’의 품사는? _____
72. ‘밭에서 농부 한둘이 일을 하고 있다.’에서 ‘한둘’의 품사는? _____
73.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에서 ‘대로’의 품사는? _____
74. ‘영미야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 사오너라.’에서 ‘손’의 품사는? _____
75. ‘걔가 벌써 도착했을 리 없다.’에서 ‘리’의 품사는? _____
76.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의 '든지'는 조사이다. [O/X]
77.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다.’에서 '그'의 품사는? _____
78.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에서 '그'의 품사는? _____
79. ‘글씨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인다. / 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해서 걱정이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80. ‘금고 가득히 금괴가 쌓이다.’에서 '가득히'의 품사는? _____
☆ 81. ‘꿈을 꾸다 / 그는 자기 소개서에 ‘초상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2.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 영미는 영희와 다르게 예쁘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83. ‘나는 버스를 타려고 달리기 시작했다'에서 '달리기'의 품사는? _____
☆ 84. ‘나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에서 '보다'의 품사는? _____
☆ 85.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에서 ‘듯’의 품사는? _____
86.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일 뿐이다.’에서 ‘만큼’의 품사는? _____
☆ 87. ‘나는 비교적 차분하다.’, ‘단순 연구 말고 비교적 연구를 해 보아라’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 88.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89. ‘나는 사과 두 개를 엄마에게 드렸다’에서 '두'의 품사는? _____
☆ 90.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 나는 내일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에서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1. ‘그는 겨우 책을 선물해 주었다.’에서 '겨우'의 품사는? _____
92.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에서 ‘만큼’의 품사는? _____
93. ‘늙다’, ‘행복하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4. ‘우리 가게는 둘째 주 일요일에 쉰다.’에서 '둘째'의 품사는? _____
95. ‘박회장이 원하는 것의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명예이다.’에서 ‘첫째’의 품사는? _____
96.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7. ‘친구들과 놀았던 장소, 친구들과 찍은 사진’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98.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없는’의 품사는? _____
99. ‘과일가게에는 수박, 참외, 토마토, 사과 들이 아주 많다.’의 '들'은 명사이다.[O/X]
100. ‘학생들이 많다.’의 '들'은 명사이다. [O/X]
101. ‘여기 다섯 사람이 있다.’에서 ‘다섯’의 품사는? _____
102.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라. / 헌 옷 / 외딴 길 / 긴 세월 / 갖은 양념’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_____
103. ‘이 학교는 내가 다닐 학교이다’에서 '이'의 품사는? _____
104. ‘친구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 / 아버지는 항상 소같이 일만 하신다.’ 각각의 품사는? _____, _____
105. ‘사촌동생의 키가 몰라보게 컸다.’에서 ‘컸다’의 품사는? _____
106.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에서 춤'의 품사는? _____
107. ‘나는 새 옷을 샀다.’에서 ‘새’의 품사는? _____
108. ‘나는 예쁜 옷을 샀다.’에서 ‘예쁜’의 품사는? _____
109.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에서 ‘즐거웠던’의 품사는? _____
110 ‘옛 기억을 떠올려 보자.’에서 ‘옛’의 품사는? _____